

*b 와 YMCA 가 함께하는 RaonAtti



RaonAtti 4th batch Monthly report - Vol.4

SL4 12월의 기록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Herbal drink 나누기 -Angulana 태권도 수업 진행 -Youth Club	2 -캐롤 연습	3 -'NC YMCA of Sri Lanka' 캐롤 서비스 참가	4 -YMCA 태권도 수업 진행 -동물원 관람	5 -대청소
6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7 -'RaonAtti Garden' 가꾸기 -장보기	8 -Herbal drink 나누기 -Youth Club	9 -'RaonAtti Garden' 가꾸기	10 -Children Club -한국어 수업 진행	11 -YMCA 태권도 수업 진행 -전통 춤 수업 참가	12 -대청소 -'Mr.Moratuwa YMCA' 보디빌딩 대회 진행보조
13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14 -벽화 그리기 준비 작업 -캐롤 연습 -장보기	15 -Herbal drink 나누기 -Angulana 태권도 수업 진행	16 -'Moratuwa YMCA' 캐롤 서비스 준비 작업 -캐롤 연습	17 -캐롤 연습 -'Moratumulla Elders home' 캐롤 서비스 참가	18 -YMCA 태권도 수업 진행 -전통 춤 수업 참가 -'Moratuwa YMCA' 캐롤 서비스 참가	19 -'Fun Run' 마라톤 대회 참가 -대청소
20 Poyaday -'St.Sebastian church' 캐롤 서비스 관람	21 -'Methodist church in Lawattawatta' 캐롤 서비스 참가 -벽화 그리기 준비 -장보기	22 -Herbal drink 나누기 -벽화 그리기 준비 -Angulana 태권도 수업 진행	23 YMCA Holyday -벽화 그리기 준비	24 YMCA Holyday -'Kadalana Church' 크리스마스 서비스 참석	25 YMCA Holyday -점심, 저녁 식사 초대 merry Christmas	26 YMCA Holyday -점심, 저녁 식사 초대
27 YMCA Holyday -'Holy Emmanuel church' 150주년 기념 서비스 참석	28 -YMCA 태권도 수업 진행 -벽화 그리기 -장보기 -'Digrolla Garden' 연말 파티	29 -벽화 그리기 -Children Club 연말 파티	30 -'Marc Sri'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Kalutana Temple' 방문	31 -나무 울타리 보수 및 잡초 제거 -벽화 그리기 -한국어 수업 진행		

내 생애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Happy New year~♥

행복했던 2010년의 마지막 12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11월부터 12월이 기다려졌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맞는 더운 날의 연말이기 때문이다. 12월 초,
우리는 모라투와 YMCA 현관에 대형 크리스마스
나무장식을 만들었다. 아마 이것이 연말을 맞는 신
호가 아니었나 싶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12월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0년 12월 25일 점심, 코디네이터 Sampath의 초대.

Sampath의 집 입구에 들어서면 마리아 상과 이것저것 모아 둔 장식
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는 Sampath 부부의 결
혼사진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이 부부의 결혼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우리만 초대 받은 것이 아니라, YMCA
가족들과 Sampath의 친척분들도 계셨다. 여러 가족들이 모인 이곳
에서 우리는 포근함을 느꼈다. 우리가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케이크와 음료를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Sampath의 부인이 직접 만든 케이크라서 더욱 맛있었는지도 모르
겠다.) 밥 먹기 전 가족들과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술을 한 잔
씩 했다. 밥을 먹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이곳의 문화다. 술자리를
마치고 우리는 좋아하는 볶음밥과 커리들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

2010년 12월 25일 저녁, Mr.Milroy의 초대

Mr. Milroy와 라온아띠와의 인연은 3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9월 어느 날 열심히 도로 중앙에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세우더니 '수폰(한상진 군)'을 향해 '라히루(노하현 군), 라히루'라고 외치셨다. 두 사람의 닮은 외모 때문에 헛갈리셨다고 한다. 어쨌든 이날을 계기로 SL4와도 3기만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덕분에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모임에 우리를 초대 해주셨다. 크리스마스 나무부터, 'Jesus Born House(스리랑카의 대다수 Christian 가정에서 이것을 만든다.)', 모빌, 음악 등 집안 모든 곳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구경을 다 하기도 전에 친척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셨다. 거의 7~8 가족들(약 20명)이 모인 저녁 식사 모임이었다. 이런 큰 가족 모임에 우리가 함께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Carol을 부르기도 하고,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다 보니, 우리 외국인이 아닌 그냥 옆집에 사는 이웃 같았다. 그래서 더욱더 편하고 신나게 그 시간을 즐겼는지도 모르겠다.



2010년 12월 26일 점심. 보드 멤버 Mr. Godfrey의 초대

Mr. Godfrey는 라온아띠 Committee의 보드 멤버 이셔서, 우리는 조금 단정하게(?) 방문했다. 집에 도착했더니 빨간 대문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부인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집 구경을 했다. 집은 전체적으로는 소박하면서도 멋이 있었다. 그리고 대문에서 바로 보이는 정원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장식장에는 Y's men in Sri Lanka의 주축 멤버답게 다양한 나라의 기념품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라온아띠 선배 기수들이 선물 한 작은 열쇠 고리도 고이 보관해 두셨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던 중 스리랑카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포도주와 케이크를 내주셨다.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달콤했다. 잠시 후, 역시나 맛있는 스리랑카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Mr. Godfrey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보다 하루 늦게 초대를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그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크리스마스날보다 더욱 행복했다.

12월 26일 저녁, Mr.Anthony의 초대

우리의 모라투와 딸따(아빠), Best 'Bajaj' Dirver, Mr.Anthony의 집을 방문했다. Mr. Anthony는 우리가 이곳 모라투와에 왔을 때부터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아빠 같은 분이래 더욱 초대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가끔 무서운 모습도 보여주셔서 집안 분위기도 아주 조용할 줄 알았지만...완전 소녀 같으신 엄마 덕분에 집안은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딸따도 집에서는 소녀의 소꿉 친구인 소년으로 변신~!! 처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웃음을 참느라 힘들 정도로 재밌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너무 화목한 분위기라 그냥 이 집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밤이 깊자 딸따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깔끔하게 파티를 마무리 지으셨다. 엄마와 다음에는 더 즐겁게 놀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12월 3일 금요일.

NC YMCA of Sri Lanka Carol Service

SL4의 2010년 첫 Carol Service!! 이날을 위해(꼭 이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Carol service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고, Tailor shop에서 셔츠에 검정 하의까지 맞추고, 신발까지 구입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했기에 설레기도 했지만 부담감 또한 조금씩 커져갔다. 그리고 당일 출발 직전 NC YMCA of Sri Lanka에서 주최하는 Carol service에 스리랑카 전체 지역 대표로 선정되어 Carol을 부른다는 말에 도착 직전까지도 떨렸다. Sampath의 말에 의하면 NC YMCA Carol service에 약 300~400여 명의 사람들이 온다고 했지만, 그곳엔 너무 이른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이었는지 약 30~40명의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 실망은 커녕 오히려 안도하며 그나마 조금 편하게 Carol을 부를 수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한국어 3절, 신할라어 1절)'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팝송, 이렇게 두 곡을 불렀다.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큰 호응을 해주었고, 그제서야 우리 SL4는 행사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시간에 우리는 큰 주목을 받았고,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각 지역 YMCA 및 크고 작은 단체에서 자신들의 Carol service에 와줄 수 있냐는 초청을 수 차례 받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Carol service는 시작되었다.



12월 17일 금요일.

Moratumulla Elders home Carol Service

SL4는 Elders Home에 초대받았다. 지난 10월 26일 하루 종일 정원 정리를 도와드렸던 일을 계기로 인연이 되어 할머니들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두 초대하여 Elders home 할머니들이 Carol을 부르시고, 쌀이나 커리(가루) 그리고 생필품들을 드리는 행사였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SL4도 새로 배운 신할라어 Carol과 우리의 타이틀 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한 몫 거들었다. 어르신들께서는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박수를 쳐 주셨다. 감사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5명의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도 감동하여,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Moratuwa YMCA Carol Service.

어떻게 보면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우리의 Moratuwa YMCA Carol Service이므로. 며칠 전, Main hall 대청소부터 무대 설치 그리고 주위 장식까지 우리의 손으로 준비를 했기에 더욱 의미 있는 날이다. 아이들과 우리는 똑같이 흰 셔츠에 검정 하의를 짝~ 빼 입었다. Children Club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더 열심히 Carol 연습을 해왔었다. 역시 아이들의 Carol은 너무 예뻐다. 아이들의 모습도 예뻐고, 노래도 예뻐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 나름 진지한 자리였지만, 우리 5명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띄며 노래를 불렀다.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Carol service는 모두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우리는 아이들과 이날을 보내기 아쉬워 Main hall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센스있는 Sampath이 조명팀과 음향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하더니 무도회장(?)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밤을 불살랐다. 정말 즐거웠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12월 24일 금요일. St. Anthony Church Christmas service.

우리의 가족이자 코디네이터 Sampath이 다니는 교회의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스리랑카에서 3번째로 높다는(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St. Anthony church에 갔다. 교회가 정말 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에 임시로 마련한 의자까지 사람들로 꽉 찼고, 서서 예배를 보는 사람도 많았다. 1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예배는 아주 경건했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단지 분위기가 그랬다, 신할라어로 진행되었기에 전혀 알아 듣지 못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진심을 다해 기도 드렸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우리 중 몇 명은 너무 깊은 기도를 드리며 살짝 졸기도 했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 친구들과 이래저래 노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우린 스리랑카에 있기에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아주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2010년의 마지막을 보냈다. 가족들, 친구들과 떨어져 멀리 스리랑카에 있지만, 여기서 생긴 또 다른 가족들, 친구들 덕분에 전혀 외롭지 않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수 있었다.

SL4가 보낸 스리랑카에서의 크리스마스...
한여름의 무더운 크리스마스였지만,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5개월 동안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활동이 될 벽화 작업을 드디어 시작했다.

2기, 3기의 벽화 옆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우리에게 할당된 벽!

우리가 이곳에서 한 활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활동이므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불사르기로 했다.

벽화 그리기에 앞서 첫 작업은 우리가 벽화를 칠 할 벽 앞에 있는 돌 치우기.

많은 양의 돌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었지만, 늘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칠드런 클럽 아이들과 기분 좋게 돌을 옮겼다. 우리 5명에서 했으면 한나절은 걸렸을 돌 치우기가 아이들과 함께 해 2시간 만에 끝냈다.

11월부터 벽화 도안을 시작하였는데 고심 끝에 세계지도와 모라투와 마을 지도를 그리자는 두 가지 제안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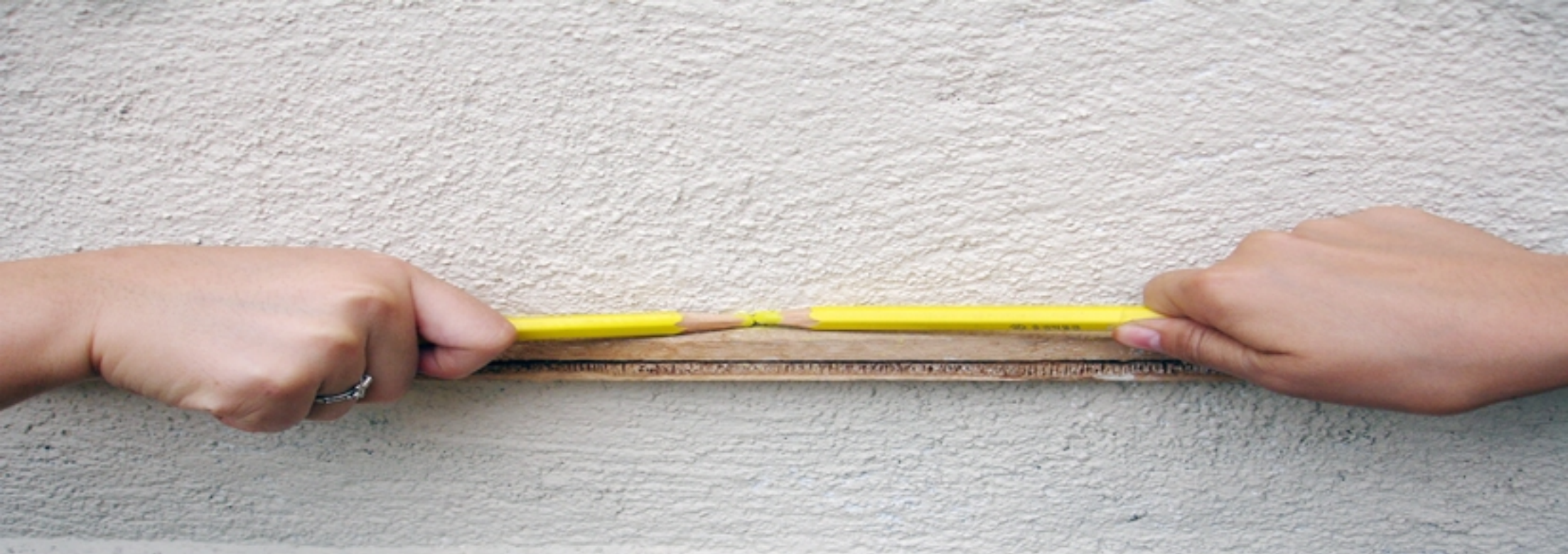
먼저 **세계지도**.

이곳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글로벌 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가 고심 끝에 내 놓은 도안이었다.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수품이 예술혼을 불태우며, 세계지도 도안을 완성하였다.

그 다음은 모라투와 **마을 지도**.

모라투와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하루에서 몇 명씩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만큼 우리가 국내훈련에서부터 배웠던 '지역과 사람'이라는 주제가 딱 들어맞는 도시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살려 벽화 도안을 그리기로 했다.





< 자! 이제 시작이다.>

모라투와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의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일러로 따고, 그 건물들을 조합해서 도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라투와의 모든 건물이 아닌 우리가 매주 월요일 마다 가는 Digrolla garden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사진을 일러로 따서 초안을 만들었다. 거기에 색을 입히고 마무리 작업을 통해 도안이 완성되었다.

수훈(상진)은 며칠 동안 일러작업을 했고, 다밋(동민)은 완성 된 도안에 색을 입히고 마무리 작업을 하여 우리의 벽화 도안이 완성되었다. 수훈은 일러작업을 하는 동안 Ctrl + S를 누르지 않아 수도 없이 했던 작업을 또 다시 해야만 했다.

코리안 미팅(일명 영감회의)때 코디네이터와 보드멤버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모라투와 마을지도를 벽화 도안으로 결정하였다.

11월부터 시작 된 도안이 12월 초에 나와 12월에 본격적으로 벽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우리 팀원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기 상을 받았던 루와니(민지)가 벽화 스케치를 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팀원이 벽화 작업은 처음이라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벽화 색을 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땡 게따이, 띠꺼깁 라싸나이!' (지금은 이상하지만, 완성분을 기대하세요^^)

비록 지금은 바탕색만 칠해 놓은 단계이지만, 1월 중순까지 벽화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하이여!

귀국발표회 때 마무리 된 **벽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우리’가 사는 세상

- 아동보호시설 ‘Marc Sri’ 활동기

지난 12월 30일(목)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팀(이하 SL4)은 칼루타나(Kalutana) 지역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Marc Sri’을 방문, 자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11명의 모라투와(Moratuwa) YMCA 칠드런 클럽(Children Club) 아동들이 함께했다. ‘Marc Sri’에는 일반 아동들을 위한 보육원과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이날 SL4는 장애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을 보조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녘, 모라투와에서 기차를 타고 칼루타나로 출발했다. 한 시간을 달려 칼루타나 사우스(Kalutana South)역에 도착한 후 버스로 바꿔 타고 다시 이십 분을 달렸을까. 드디어 ‘Marc Sri’에 도착했다.

이미 지난 11월에 이곳을 방문했던 SL4는 보다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 때, 중증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처음 만났던 일부 단원들은 반가움의 표시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외양이 확연히 다른 장애아동들을 보면서 놀람을 다스리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Marc Sri’에서의 하루는 장애아동들의 목욕과 세탁으로 시작한다. 총 22명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 아동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한다. 때문에 밤새 아동들이 입고 있던 옷에 그대로 처리한 대·소변을 치워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은 주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대·소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옷을 세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바로 옆방에서는 아직도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벗긴 옷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헛구역질을 하면서, 그 또한 최대한 참으면서 한 생각이 있었다. 나는 비록 하루를 다녀가며 오늘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이곳에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정리가 되고, 머무르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들더라. 이때부터 ‘Marc Sri’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웃고, 더 먼저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그곳에서의 순간과 우리의 만남이, 나와 그들 모두에게 서로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랐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조금은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진다. 'Marc Sri'의 장애아동들은 신체적인 장애와 더불어 정신적인 장애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보다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본인 스스로와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몸이 조금 더 불편한 아동과 상대적으로 덜 불편한 아동이 있는데, 몸이 덜 불편한 아동이 자신보다 더 불편한 아동에게 밥을 먹여준다. 한 사람은 누워있는 것조차도 힘겹고, 그에게 밥을 먹이는 사람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돕는다. 이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후에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 정원을 청소하고, 유용한 컴포스트(Compost)를 중앙 화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Marc Sri'에서 이와 같은 일은 신체 건강한 자원활동가가 오지 않으면 차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모라투와 YMCA 칠드런 클럽 아동들은 처음 만나는 장애아동들의 모습에 당황해 선뜻 다가가지 못했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싶지만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렸으리라. 그러다 SL4의 손에 이끌려 장애아동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시도하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들이 보이는 작은 반응에 서서히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어느새 친구가 된 'Marc Sri' 아동들을 위해 칠드런 클럽 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SL4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칠드런 클럽 아동들 덕분에 육체노동에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낀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날 함께한 칠드런 클럽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Anush(15) :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슬펐다.
 Dharindu(14) : 매일 감사해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Dirdesh(12) :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 친구들을 보며 슬펐다.
 Dulanjane(15) : 평소에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몰랐지만 오늘을 계기로 비로소 알 수 있었다.
 Jayacarani(11) : 슬펐다.
 Uthtama(13) :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Nemasha(11) : 나에게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Pathum(15) :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는 다르지 않다.
 Pathum(12) : 어려운 사람, 특히 장애인을 도와야겠다.
 Pragathi(11) :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Samith(13) : 그 친구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에 복지시설 '꽃동네'를 설립한 최귀동 할아버지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Marc Sri'에서의 짧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는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당연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에게, SL4에게 그리고 칠드런 클럽 아동들에게 'Marc Sri'가 준 무언의 가르침이다.



Thank you for inviting



안녕하세요. SL4의 Supun입니다. 글을 써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소연부터 해도 될까요??^^; 아니, 벌써 마지막 월간 보고서를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제 여기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이곳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요?!!! 정말.. **Unbelievable!!!!**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네요, 아~ 그래도 아쉬운 것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저의 신세타령은 그만 접어두고 저 Supun이 이번에 들려 드릴 이야기는 스리랑카 Invatation Culture입니다.

저희 SL4는 스리랑카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지인들에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몇 번의 초대를 받고 우리는 이색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 Invatation Culture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우리는 처음엔 신기했지만, 지금은 아주 당연히 그 상황을 즐기는 우리 SL4를 볼 때, “야~ 우리도 스리랑칸 다 됐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 이제 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색문화**’ 우리에게 ‘**일상**’ 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Surprise One!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What??

“아버지는 말 卍~ 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卍~” 하지만 빈 속엔 술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던, 하지만 아버지 여기선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하네요.. 여기 스리랑카에서 첫 초대 받았을 때 가 기억나네요. 저녁식사 초대를 받은 우리는 첫 초대인 만큼 양껏 꾸미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을 떡 벌리게끔 하는 일이 있었으니, 식사대신 술상이 먼저 차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도 식사와 반주를 겸하고 있지만, 빈 속 즉, 식사 전에는 술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여기 스리랑카는 식사전에 간단하게?! 아니 거하게 한잔들 하신다. 알콜 지수 34도 이상인걸루다가~(ARAK)

그리고 다 마신 후에야 우린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혹시, 5기 스리랑카 단원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말 명심하시길 “잔 비우지 못하는자, 식사할 자격도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나요??^^ 하지만 진실!



< Mr. Godfrey >



< Dimlithy Fam >



< Millroy Fam >



< On Christmas >



< Sampath House >



< Foods >



< Ruwan & Sagar >



< Twins Mother >



< Lion's Club Party >

Surprise Two

서프라이즈 그 두 번째, “**다같이 초대는 받았지만, 식사는 다같이 하지 않는다!?**”
 먼저 온 사람이 알아서 식사를 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대로 식사를 알아서 한다.
 우린 갑작스런 식전 Drinking으로 인해 헤롱헤롱~ 하지만, ‘술로는 내 배를 채울 순 없어!!!!’
 라는 배의 외침 속에 우리는 식사를 하려는데, 식사를 먼저 끝낸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
 하려는 분, 나중에 드시는 분 Etc.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다르게 **선착순**이다!
 먼저 오면 먼저 먹고 늦게 오면 늦게 식사를 한다. 처음에 우린 식사를 다하고 앉아 있는데
 뒤늦게 오신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뺨뺨히 쳐다보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 우린 식사를 먼저 하고 나면, 뒤늦게 식사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Surprise Three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단지 음식점에서만 쓰인다는 선입견은 버려라!!!!
 말그대로, 초대를 받은 우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대한 사람이 일일이
 손님들 찾아 다니면서 음식을 서빙해 준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던 우리는 손사래를 치며 우리
 가 가서 먹겠다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문화인 것을 알고 그 문화 속에 스며드는 우리를 보
 았다. 그리고 지금 말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용했으면 하는 나의 작은 바람이
 있는 부분!! 고것은!! **‘뷔페’**. 음식이 다 뷔페다.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다.
 난 이문화가 너무 좋다.^^ 그리고 5기에게 다시 한 번 조심스런 나의 견해를 말하자면 혹, 초
 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최소 세 접시는 먹어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 한 접시로 끝
 낸다면, 초대 하신분들이 정색한답니다. 정말이에요.^^

스리랑카에서 만나는 아시아! ASIA!

스리랑카는 아시아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 때문인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많은 부분이 서구화돼 있다. 철저한 입식 생활, 의무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티 문화, 대부분의 거리 간판에 쓰인 영어 같은 것만 본다면 이 땅에서 아시아, '동양적 요소'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사실 아시아 대륙 자체가 물리적으로 넓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아시아 대륙이라는 이름 아래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한 잣대로 아시아 각 국가들의 특징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우리가 따르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징에 비춰,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팀(이하 SL4)으로 살아온 네 달을 통해 느낀 스리랑카의 동양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 불교 문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식적으로 국교가 불교인 나라이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종파에 차이는 있더라도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종교이다 보니 스리랑카의 종교 부분 또한 동양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스리랑카의 경우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각종 부처상들과 캔디(Kandy)를 필두로 한 거대한 사찰도시들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 윗사람에 대한 공경 의식과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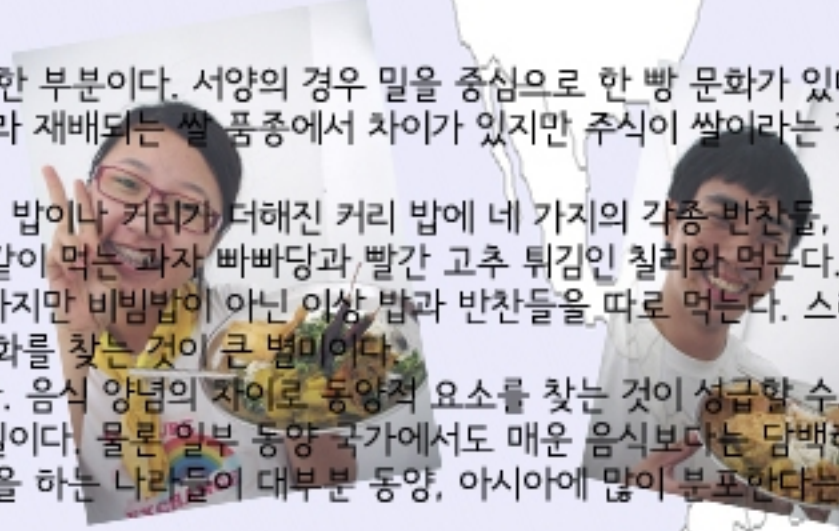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 중 하나는 타인을 대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회 생활에서 나이에 따른 서열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구분되면 '누나, 동생, 언니, 오빠, 형'의 호칭을 사용한다. 스리랑카 역시 '아까(여자 윗사람), 아이야(남자 윗사람), 낭기(여자 아랫사람), 말리(남자 아랫사람)'와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호칭의 사용 범위가 최소한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된다면 스리랑카의 경우 비록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특히 오빠나 언니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곤 하는데, 호칭의 사용가능 나이 차이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SL4에게도 많은 아까, 많은 아이야, 많은 낭기 그리고 많은 말리가 있다.

- 음식 문화

음식 문화는 해당 사회를 말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서양의 경우 밀을 중심으로 한 빵 문화가 있다면 동양은 쌀을 중심으로 한 밥 문화가 있다. 동양에서도 지역에 따라 재배되는 쌀 품종에서 차이가 있지만 주식인 쌀이라는 점은 아시아를 묶는 큰 연결고리이다.

스리랑카에는 '밥과 커리'라고 하는 기본 주식이 있다. 하얀 밥이나 커리가 더해진 커리 밥에 네 가지의 각종 반찬들, 여기에 치킨·생선·쇠고기 중에서 하나를 더해 밀가루로 만든 밥과 같이 먹는 과자 빠빠당과 빨간 고추 튀김인 칠리와 먹는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또한 밥과 반찬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비빔밥이 아닌 이상 밥과 반찬들을 따로 먹는다. 스리랑카의 밥과 커리는 여러 반찬들을 야무지게 비벼서 부조화 속의 조화를 찾는 것이 큰 별미이다.

여기에 스리랑카 음식들은 맵고 양념이 강한 음식들에 많다. 음식 양념의 차이로 동양적 요소를 찾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양의 경우에는 매운 음식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 동양 국가에서도 매운 음식보다는 담백하거나 달달한 음식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식문화에 매운 양념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양, 아시아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 또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부장제도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스리랑카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점은 서구의 가족 중심의 생활과 많이 닮아 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는 것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언권이 더 크다. 단적인 예로, 결혼을 하면 서양의 경우 대부분의 신혼부가 새로운 집을 얻어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만 동양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여성의 입장에서 시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남성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만약 스리랑카를 짧은 일정의 여행으로 왔었다면 생활 속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아시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유대-동양적 공감대-는 분명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안고 왔지만 이 발견이 실제로 나에게, SL4에게 준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내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려 하기도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스리랑카의, 아시아의 수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비록 생김새가, 피부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아시아인(Asian)** 이니까!

종합 평가

과목명 : SL4의 모든 것
일시 : 2011년 1월 어느 날
시험 시간 : 11분 47초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객관식>

1. (인물★☆☆) 다음 중 SL4 멤버들과 신할라어 이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강민지-루와니
- ② 정동민-다밋
- ③ 한상진-포크
- ④ 허소현-사그리
- ⑤ 김보람-허루니

2. (여행★★☆) 다음 중 SL4 멤버들의 '스리랑카 투어1탄'의 방문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 ① 캔디(Kandy)
- ② 갈라하(Galaha)
- ③ 시기리야(Sigiriya)
- ④ 칼루타라(Kalutara)
- ⑤ 담불라(Dambulla)

3. (활동★★★) 다음 중 SL4의 정규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강가의 아이들 in Digrolla Garden
- ② 콜라캔더 in Lunawa Government Hospital
- ③ 한국어 교실 in Moratuwa YMCA
- ④ 태권도 교실 in Moratuwa YMCA & Angulana
- ⑤ 페인트칠 in Lunawa Government Hospital

4. (인물★☆☆) 다음 중 라온아띠 4기 면접 시 태권도복을 착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다밋
- ② 사그리
- ③ 루와니
- ④ 수퐁
- ⑤ 허루니

5. (활동★★★) 다음 중 SL4가 크리스마스 캐롤 서비스에 불렀던 캐롤은 무엇일까요?

- ① 징글벨
- ② 창밖을 보라
- ③ 루돌프 사슴 코
- ④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⑤ 기쁘다 구주 오셨네

6. (장소★★☆) 다음 중 허루니(김보람)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물을 흘린 미용실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뉴 스타일' 살롱
- ② '센트럴' 살롱
- ③ '사그리' 살롱
- ④ '웨이브' 살롱
- ⑤ '까꼬뽀꼬' 살롱

7. (음식★★☆) 다음 중 다밋(정동민)이 SL4의 주방에서 가장 자신있게 만드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 ① 뽕료롱 파전
- ② 고소한 야채죽
- ③ 특제 비빔밥
- ④ 진짜 해물탕면
- ⑤ 완벽한 채소 다듬기

<주관식>

8. (인물★☆☆) 사그리(허소현)이 SL4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0000 막내)

()

9. (경제★★★) 수퐁(한상진)이 가장 좋아하는 은행은 어디일까요?

()

10. (인물★★☆) 크리스마스 점심에 SL4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서술형>

11. SL4 Magazine 9월호부터 12월호까지 가장 재미있고, 참신했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0자 원고지 1/2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 정답을 작성하여 라온아띠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고득점자 중 선착순 1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2월 7일 이후 일괄 배송)

'SL4'를 아치여...

안녕하세요. 스리랑카팀 한상진 단원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지금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써내려 가기 전 지난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훑어 보았습니다.

“대체 난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왜 왔지? 그들에게 난 뭐였지? 후회없이 지내왔나?”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잡고 나의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봤자 답이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 수많은 질문에 답하지 못 합니다. 아마 그 답을 구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 갔을때, 그들이 나에게 미친 내 삶의 변화는 말로 다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사랑을...

- Supun -

우선, KB-YMCA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곳에서 소박한 삶 속에 얻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현지인들과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유창하진 않지만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이 참 좋다. 용서와 배려, 겸손과 긍정, 사랑을 알려준 곳, 또 다른 나의 참 모습을 알려준 곳, 이곳은 바로 제2의 고향 스리랑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옆에서 쓴소리 단 소리를 해주는 4기 랑카팀원 언니오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곳에 오기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내가 겪은 6개월 간의 모든 것들을 머릿 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묻겠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모든 이들 덕분에 행복했다. 오늘도 나는 아시아를 품기 위해 달린다. 월간 보고서가 끝나고 스리랑카의 생활이 끝나지만, 내 인생에 있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축하하며.

- Sagari -

학보사 퇴임을 앞두고 썼던 칼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밤 하늘의 별을 볼 여유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노라.'고 적었었다. 스리랑카에서 나는 어두운 밤 총총히 빛나던 별과 더불어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소리 없이 내리던 비도 그리고 저 하늘에 뭉실뭉실 자리한 구름까지도 마음껏 봤다. 내가 맨발의 자유로움을 느낀 곳, 국적이 다른 '빠울러'가 생기고 그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곳에서 나는 나날이 성장할 수 있었다. 누군가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온 마음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제 그 행복의 시간에 마침표가 아닌, 잠깐의 쉼표를 찍으려 한다. 다음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일까. 스리랑카에서 맞는 마지막의 울림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SL4' 만들기는 내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별한 일상의 '쿨 스프라이트' 한 모금과 같은 청량제였다.

- Ruwani -

'SL4'. 첫 월간 보고서를 만들 때, 제목은 어떤 것이 좋을지 팀원들 모두 참 오랜 시간을 고민했었다. 그러던 와중 내가 톡 던졌던 'SL4'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 우리 월간 보고서의 제목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팀원들은 월말이 되면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 아이디어 회의부터 취재 및 인터뷰,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테다. 나는 리더이기도 하고, 또한 단지 리더라는 이유로 'SL4'의 편집장이 되었기에 월간 보고서에 대한 욕심이 더 컸고,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팀원들을 고생시키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못난 리더, 못난 편집장을 등에 업고도 다들 전혀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만들었기에 이렇게 멋진 월간 보고서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에 'SL4'를 마치는 이 순간, 우리 'SL4' 다섯 명(본인 포함)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다. 비록 스리랑카에서의 'SL4'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한국에서 시작 될 'SL4'의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

- Damith -

월간 보고서. 이 다섯 자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사실 다른 팀원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9월 보고서를 보내고 나면 10월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고, 10월 보고서를 보내고 나면 11월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다. 매번 월간 보고서 기사를 쓸 때마다 글이 짧다는 이유로 한상진이 오빠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4달이 지났다. 월간 보고서를 준비할 때면 그 달의 끝자락에서 그 달을 다시 되돌아보며, 지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사진을 다시 훑어 보면서 다시 한 번 나를, 나의 생활을, 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월간 보고서 '덕분에' 활동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스리랑카를 보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토록 아쉬웠던 적이 또 있었던가...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쉽다. 기사를 쓰기 위해 이리저리 조사를 다녔던 그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도, 즐린 눈을 비비며 함께 포토샵 작업을 하던 추억도... 이제 마지막이다. 월간 보고서는 끝이지만, 우리 함께했던 추억은 영원히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Hiruni -

< The best thing we can do now is LOVE >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랑,



정말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면 사정상, 사진을 넣지 못한 많은 분들 또한 사랑합니다. -SL4